

삼성전자, LCD 매출 세계1위 계속

11월 14억1000만달러로 9개월 연속 1위 ... LCD 패널 시장 800억달러

삼성전자가 19개월 연속 LCD(Liquid Crystal Display)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월 전체 LCD 매출실적에서 14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9월 연속으로 전체 LCD 매출 1위를 달성했다.

또 2006년 LCD 누적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2005년에 이어 5년 연속 세계정상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1-11월 누적 매출은 13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2위인 LG필립스LCD는 103억1000만달러로 집계돼 국내 전체 LCD 누적 매출이 239억6000만달러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AUO, CMO 등 타이완기업들의 누적 매출은 208억8000만달러로 우리나라와 약 30억달러의 차이를 보여 12월 매출에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서치는 2007년 LCD 패널 시장이 전체매출 기준으로 약 15% 성장한 약 800억달러로 성장하고 2010년까지는 950억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하량은 2007년 약 25% 성장한 16억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0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아이서플라이는 2007년 대형 LCD 패널 시장이 매출 기준으로 21% 성장한 62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았고, 출하량 기준으로는 약 25% 성장한 3억4000만대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6>